

요한 1 서 묵상 21
(9/19/2020, 토)

찬양: 357(397)(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 서 5:4-6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에는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요한은 이제는 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4 절 - 무릇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상”이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들, 타락하고 최악된 세상의 가치, 사상, 경향성, 흐름 등을 묶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러한 반하나님적이고 타락하고 왜곡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영적 승리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기느니라”라는 말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니카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끝에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승리를 묘사할 때 빈번하게 쓰였다고 말합니다(계 3:21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5:5; 12:11).

성도가 세상을 이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16:33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은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합니다. 5 절 -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이해를 함께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6 절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6 절 -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음을 드러냅니다. 이와 함께 학자들은 “물과 피”를 세례

와 성찬과 연결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도 연결합니다. 아울러 물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받은 물세례를 의미하며,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다시 말해서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물과 피”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구원 사역 전체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고 가르칩니다(6 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성령님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부터 공생애 사역 내내 강력한 임재의 역사 가운데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이해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당시 많은 이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영적 승리를 얻게 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망과 죄악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이깁니다. 최악된 세상이 주는 온갖 종류의 유혹에 걸려 들지 않으며, 광야 인생길에서 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난관을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세상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영향을 받고, 주님께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울러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요한이 요한 1 서 2:15 에서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최악된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집착하고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요일 2:15-16 -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영적 승리를 얻기 원하는 성도는 특히 환난 때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때에 특히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최악된 세상이 주는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3. 질병과 자연재해의 큰 환난 속에서 힘들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